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4호 【루계 제26008호】 주체107(2018)년 5월 1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자력갱생은 조선혁명가들의 일관한 투쟁방식이고 창조본때이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위력은 무한대이다.

우리 당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자력으로 기어이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지금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기세는 충천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활력있게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은 본질에 있어서 자력갱생대진군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자력갱생정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최근년간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대렬이 늘어났다. 려명거리와 대규모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전인불발하여 안아온것이다. 현실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할 때 이 세상에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에는 자력갱생을 제일화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깃들어있다.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천리마시대 자력갱생의 시사시를 떠우며 자란 인민, 무궁무진한 창조적재능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기에 우리 당은 배심든든히 조국번영의 설계도를 마음껏 펼치고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의 부름에 불같은 충정과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으로 화답해나서는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궤도를 따라 승승장구해나가는 근본비결이 있다.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

당의 병진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자력갱생은 결코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자기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자력갱생정신, 자력자강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고 기본원칙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을 자력갱생의 영웅서사시로 수놓아감으로써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고 공화국의 불패성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확고한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은 영원하다. 오늘의 세계에서 남의 힘을 빌어 번영을 이룩해보려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혁명정신이 강한 인민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만리마시대 자력갱생의 새 력사를 써나가겠다는 열정과 투지가 온 나라에 딱 차넘쳐야 한다. 당이 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자체의 힘으로 결사관철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로, 풍모로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드세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피땀바쳐 마련해놓은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은 대단하다. 현존생산능력만 최대로 발양시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고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힘,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는데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자급자족을 실현해나가는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설비들을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어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야 한다.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여유설비와 부속품, 자재들을 생산에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절약에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이자 생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한W의 전기, 한방울의 연유라도 최대한 아껴쓰고 절약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절약하기 위한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짠지게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로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기적창조의 원천이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뛰여난 진것을 창의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기발한 착상과 혁신적인 발명도 할수 있고 나라의 경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이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핵을 이루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전선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준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은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최대로 분발하여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혁명의 핵심이며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뛰고 또 뛰여야 대중이 따라서고 모든 부문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다.

일군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력갱생대진군에 한몸을 내대야 한다. 아무리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절대로 과장우왕하지 말고 자체의 힘과 력량을 발동시켜 수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격렬한 전방에 전투과 지휘 정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찾아내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나가야 한다.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기술지식을 지니고 경제조직과 지도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나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단위 사업을 부단히 혁신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극력 아껴쓰며 자기 손으로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여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애국적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의도대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과 같은 낡은 사상잔재를 자력갱생의 불길로 말끔히 태워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맹렬히 벌려야 한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미래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체신성 산하단위 로동자 림수련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절실히 필요한 많은 기공구들과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강동군 대잡축산전문협동농장 농장원리명희는 지난 20여년간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과 떡도라지, 꽃씨 등을 마련하여 주체의 최고성지를 꾸리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안고 보통강유원지관리소 로동자 송일화는 태양의 성지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북청군농촌건설대 소대장 김진철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실 열의밑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빛내이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광강도재판소 로동자 송혜은, 대성산유원지종합식당 로동자 안청미도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지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원 강규철은 과학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설비를 제작하고 의약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사원생들인 조영광, 박충혁은 갖가지 건강보호약들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철준,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연구사 김대성도 여러가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연구완성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인민을 위해 더욱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사상사업의 화력을 금속공업부문에 집중

남포시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입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총공세의 열풍, 경제건설대진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남포시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심장깊이 새긴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금속공업부문을 화선선동의 기본대상으로 정하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선전선동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면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드세게 내밀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방송경연을 조직하여 강철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비상한 각오를 안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며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한 내용의 격동적인 선동연설과 실효성이 높은 방송선전의 위력으로 하여 철강재생산에서는 련일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각 구역, 군들에서 매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집중경제선동을 들이대고있다. 시예술선전대 대원들은 여러 현장을 찾아 기동적인 예술선동으로 강철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일판된 경제선동활동에 크게 고무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중요공장, 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련합기업소의 여러 직장들을 순회하면서 예술선동활동을 즐기차게 벌림으로써 전투장들마다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지에서 전투속보제목과 내용, 정치사업자료도 보아주면서 모든 선전선동사업이 참신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직관선전의 실효를 높이도록 경쟁열을 북돋아주어 일터마다에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강서구역, 와우도구역, 항구구역의 당선전일군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철의 기지에서 화선선동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룡강군, 온천군, 대안구역의 당선전일군들도 시안의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선전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수백건의 기술혁신안 창안도입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공업부문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석탄공업성적으로 굴진과 채탄, 운반계통 등에 가치있는 수백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석탄생산에서 은을 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금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전들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림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맹렬한 탐구전, 창조전이 벌어지고있다.

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된 기술자, 기능공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로 새날을 맞이하고있다. 이에 맞게 일군들은 기술혁신과제수행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앞세우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키고있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탄광, 공장들의 일군들과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기술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뚜렷한 성과들을 내놓고있다.

긴장한 운반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혁신전투가 활발히 벌어져 좋은 결실이 이룩되고있다.

남양탄광에서는 장거리벨트콘베아현대화공사를 광명성절전으로 끝내여 운반문제해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고 남덕청년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새로운 복합재료를 가지고 로라를 제작설치함으로써 벨트콘베아의 정상운영을 보장해나가고있다. 인포청년탄광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밀폐식탄차바퀴 수백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운반능력을 1.2배로 높이였다. 이미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한 2.8직동청년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석탄 및 동발운반용소형인양기를 만들어 막장작업에 리용하게 하여 적은 로력으로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올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흑령탄광, 명학탄광 등 여러 탄광들에서는 단위의 실정에 맞는 갱도삭도와 운반기들을 제작도입하여 석탄운반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굴진, 채탄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여러 탄광, 공장들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여러종의 압축기들을 제작하여 시운전에서 성공함으로써 굴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득장탄광기계공장에서도 자체로 제작하는 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의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능률적인 긴구멍천공기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고 모든 탄광들에 확대도입하여 석탄생산을 1.3배로 높이였으며 새형의 공기식적재기제작으로 굴진작업시에 버럭처리를 신속히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과제수행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과 어깨를 겯고 혁신적인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니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남덕청년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광폭식채탄공법도입을 위한 다기능화된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제작설치하고 운영하여 석탄채취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득장청년탄광에서는 갱도영구화실현에서 의의있는 소형습식콩크리트압사분무기들을 제작도입하여 덕을 보고있으며 대장광이 많은 새 탄밭개발로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명학탄광에서는 새형의 콘베아제작도입을 위한 기술혁신전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탐사설비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행생산이 긴장한 속에서도 이동식공기압축기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설계와 지구, 장비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밖에도 석탄공업부문의 많은 탄광, 공장들에서 국가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10여건의 중요과학기술과제수행을 비롯한 수백건의 기술혁신목표를 내세우고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절파 공화국창건 일흔돐기념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첫 총화에서 석탄공업부문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데 이어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있다. 각 탄광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함경남도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함경남도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장성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단천제련소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꾸리기 전에 비해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1.4배로 늘이였다.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적극 참가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발명제안들을 완성함으로써 올해에만도 20여건의 경제적의의가 큰 기술혁신성과들로 유색금속생산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짜고들고있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지식형의 기능공대렬을 늘여 그들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 종업원들은 누구나 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있으며 이 과정에 중요기로를 들인 정소모기베자와 꼬치염색후련조제자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함주돼지공장, 단천시산림경영소 등에서는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혁신과 현대화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고있다.

함흥시 함흥남새전문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홍원군 유협동농장에서도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농장원들모두가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무산광산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룡전땅의 한 일군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이야기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화대회의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북청화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길에서 한 당일군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미처 다 알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실력가가 되여야 합니다. 높은 충실성에 실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복잡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주체50(1961)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화대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였다. 회의장을 나서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력사적인 북청화대회의가 진행된 북청군 룡전리의 당위원장이였다.

그가 제대군관이라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와는 달라서 당사업을 하자니 힘이 들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고 소탈하신 인품에 끌린 리당위원장은 어려움을 잊고 사업에서 느끼고있던 고충을 사실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와 함께 길을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당원들을 얼마나 료해하였는가, 조합원(당시)들을 얼마나 만나보았는가, 찾아가서 만났는가, 찾아왔을 때 만났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리당위원장은 말문이 막히였다. 이곳에 온지 반년나마 되였지만 가을걷이요, 농사차비요, 문화주택건설이요 하면서 분주히 돌아가다나니 찾아온 사람들마저 후날에 만나자고 돌려보낸 일이 적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이런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당사업을 왜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가, 가을걷이를 하건 씨붙임을 하건 문화사업을 하건 당일군은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리에 당원이 몇명이고 조합원은 몇명이며 세대수는 얼마인가를 알아보시고 그럼 동무에게 한가지 과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조합원이 900여명이라고 하니 한 1년반 동안을 계획하고 조합원들을 다 만나보라고 이르시였다.

리당위원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리당위원장에게 한마음에 깊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도 있는것입니다, 때이면 때이 다 소질도 다르고 수준이나 경력도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일군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알아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아파하는것을 풀어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 한 일군이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정을 일부 미루더라도 처음 알게 된 이 동무와 이야기를 좀더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리당위원장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사람들을 몰려다가 만날수도 있지만 동무가 조합원들속에 들어가 일도 같이하고 살림살이의논도 해주면서 친숙해져야 합니다. 조합내 당원들을 잘 알고 조합원들을 잘 아는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리당위원장은 많은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욕망만 앞세우면서 일한 자신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위원장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한 곳에서 당사업을 하는 동무의 책임이 무겁다고, 그러나 조합원들을 교양개조하여 하나로 묶어세우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북청화대회의가 진행된 고장에서부터 나라의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직접 담당한 당일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정법한 농촌당일군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를 다녀가신 후 리당위원장은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것이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하려는 생각에서 일과에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겹치고 예견치 않았던 일이 제기되기도 하여 계획대로 할수 없었다. 그러한 과정에 리당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만나는것을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격식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또한 사람들을 실속있게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하여 미리 료해도 하고 이야기할 내용도 준비하며 대상에 따라 방법도 달리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리당위원장은 힘과 신심이 커지는것을 느끼였다.

북청화대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두해 남짓이 흘러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룡전리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위원장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동안 과수원을 조성한 정형과 과일나무비배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장원들을 다 만나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리당위원장은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몇해전에 지방의 이름없는 한 당일군에게 주신 과업을 잊지 않고계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뜨겁게 배풀어주시는 믿음에 가슴을 뜨거이며 리안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체험한바를 자초지종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처럼 그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그가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느낀것, 교훈을 찾은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럴수 있지, 옳게 생각했소라고 수긍해주시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농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산마루에 이르게 되였다.

그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논밭가운데 서있는 몇채의 집을 가리키시며 문화주택을 많이 지은것 같은데 저 집들은 왜 옮기지 못했는가고 리당위원장에게 물으시였다.

당시 리에서는 산기슭에 아담한 살림집들을 수십동이나 지었는데 몇집만은 한사코 새 집으로 옮기려 하지 않고있었다. 일도 잘하고 생활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인데 집을 옮기는데서는 왜 그러는지 요지부동이였다.

리당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복해서 꼭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내리먹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면 당의 군중로선을 어기고 군중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어느 한 마을의 무녀회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작원이 파견되였는데 그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마을의 한 집에서 앓는 아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굿판을 벌려놓았다. 공작원이 그 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미신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었으나 그 녀인은 듣지 않고 굿을 한 다음 또 치성을 드린다고 소란을 피웠다.

공작원은 보다 못해 몰래 치성물을 치워버렸는데 그것을 알게 된 녀인은 이제 자기 집은 물론 온 마을이 화를 입게 될것이라고 소동을 피웠다.

이렇게 되여 공작원은 뜻하지 않았던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마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시여 일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원을 데려다가 그 집 아들의 병을 보게 하시고 약을 쓰도록 하시는 한편 마을사람들속에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런 속에 미신에 빠져있던 녀인도 잘못을 깨닫게 되였으며 후에는 부녀회원이 되였다. 그의 아들이 병을 고치게 된것은 물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나서 오랜 생활과정에 물젖은 인습을 생나무껍질이 해서는 안된다고, 옮기기 싫어하는 저 집들에도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니 잘 알아보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깊이 알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이끌어나가는것이 당일군의 실력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당일군은 직권을 가지고 일할것이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호령하고 내리먹이는 관료주의밖에 나올것이 없습니다.

갓 당사업을 시작한 평범한 농촌리의 한 일군의 사업능력을 키워주고 자질을 높여주기 위해 기울이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은 참으로 사려깊은것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당일군은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속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렇기때문에 당일군이 되기는 쉬워도 당일군구실을 하기는 힘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리당위원장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빛넘치는 과수원길을 걸으며 그 어데서도 들을수 없는 당사업에 대한 귀중한 강의를 받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끝없이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그에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당일군의 실력을 빨리 높일수 있고 당사업도 잘해나갈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교시를 받아안으며 리당위원장은 사람을 아는것뿐이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자신이 아직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것을 자책하면서 그가 수령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또다시 어려해가 흐른 뒤였다.

북청화대회의 10돐기념 함경남도보고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정이 매우 긴장하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른아침에 시간을 내시여 그 리당일군이 일하는 농장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곁으로 부르시여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과수원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과수원을 누비며 조용히 달리였다.

그때였다. 문득 차를 세우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용차에서 내리시여 길가의 한 사과나무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여느 나무보다 키가 작고 불도 잘 오르지 않은 나무였다.

나무둘레를 도시며 찬찬히 살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일군에게 나무가 왜 이렇게 된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비료를 적게 준탓인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게 아니라 비료를 너무 많이 주었기때문에 가는 뿌리가 상해서 이렇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나무의 수세를 돋구어줄 방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는 과일고장에서 일하면서도 과일나무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다나니 지금까지 수세가 약한 나무들을 보게 되면 덮어놓고 비료를 더 주라고 요구해온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리당일군을 떠여보시며 지금 무슨 책을 읽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정한 계획이 없이 손에 잡히는대로 읽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보는 읽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리당일군은 얼굴을 붉히였다. 신문은 매일 보고있었지만 일이 바쁠 때면 제목이나 훑어보고마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것이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세대주가 일을 잘못하면 한 가정이 피해를 보지만 리당일군이 모르고 일하면 농장이 녹는다고 하시면서 리당일군은 농사일만이 아니라 학교사업, 진료소사업을 비롯하여 리안의 모든 사업을 다 지도해야 하는것만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과수업도 알고 보이라도 알아야 하며 후대교육사업과 보건위생사업 그리고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지녀야 할 실력에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실력있는 일군으로 준비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졌다.

당일군은 사람을 알고 사람과의 사업을 할줄 알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고 당사업방법을 알아야 할뿐아니라 경제기술실무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을 그는 심장으로 자각하게 되였다.

이렇듯 리당사업을 말은 어제날의 제대군관을 당의 의도대로 농촌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로 농장원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있는 당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손길이 있어 또 한명의 쟁쟁한 실력가형의 농촌당일군이 자라나게 되였다.

정법한 한 농촌리당일군을 위해 그토록 오랜 나날 품을 들이시고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한 농촌리당일군을 훌륭히 키우시기 위해 주신 과업, 늘 사람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만나보고 마음을 움직이며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데 대하여 주신 그날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깊이 돌이켜보게 하고있으며 언제나 수령님의 의도대로 일해나갈 결심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고있다.

누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일군에게 주신 뜻깊은 과업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사업해나갈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일군의 풍모와 실력을 갖추게 될것이며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는 눈부신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명승지에 어린 뜻깊은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고 늘 마음써오시였습니다.》

어느해 5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송도원을 찾으시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동해바다기슭으로 백사장이 무연하게 펼쳐져있고 청청한 소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어 더없이 운치를 돋구어주는 인민의 유원지 송도원.

우거진 소나무숲에서는 향긋한 송진내가 물씬 감돌았다.

명승지의 수려한 풍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송도원은 수령님께서 유원지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뜻깊은 곳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펴나고 거룩하신 자욱이 깃든 영광의 땅이라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송도원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돌이켜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따라 걸음을 옮기였다.

소나무숲에 있는 련못의 구름다리를 지나 정각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관심하시는 송도원을 더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련못에 잉어, 붕어같은 물고기들을 많이 기를데 대한 문제, 수령님의 교시대로 총계획을 바로세우고 전망성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 유원지구역을 대담하게 넓히고 곳곳에 유희시설과 체육오락시설들을 더 많이 갖추어줄데 대한 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송도원은 수령님께서 유원지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뜻깊은 고장이다, 수령님께서 송도원을 잘 꾸리라고 늘 강조하시는 높은 뜻을 동무들이 잘 알아야 한다, 수령님께서 송도원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에는 귀중한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때문에 송도원에 있는 소나무들을 잘 관리하여 하나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의 세계에 어찌 일군들의 마음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으랴.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도록 정겨운 눈길로 송도원의 드넓은 소나무숲을 둘러보시면서 송도원에 있는 소나무들은 금보다 더 귀중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송도원의 풍치를 이루는 소나무 한그루한그루를 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유원지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미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려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

가없이 펼쳐진 송도원의 푸르청청한 소나무숲은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오늘도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2.8직동청년탄광 당조직에서 탄부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석탄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연구발표회와 독보, 해설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막장에 내려간 한 일군은 작업의 열참에 탄부들에게 한평생 조국의 무강번영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면서 장군님의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고무된 탄부들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조직에서 진행하는 애국주의교양은 그대로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일군의 본분－책임성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신들메를 바짝 조여매고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돌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성이란 책임을 지고 하려는 각오정도나 태도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책임적으로 일한다는것은 맡은 사업에 대하여 당과 인민앞에서 전적으로 담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의무가 있고 존엄이 있으며 영예가 있는것이다.

자기 단위의 일은 전적으로 자기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숭고한 당적사명감, 당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자각성, 바로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책임성이다.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기구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이 어떻게 책임적으로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하다면 오늘날 우리 일군들은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책임적으로 일하여야 하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한 오랜 상하수도관리공의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생을 상하수도관리공으로 일해온 그에게는 남달리 별명이 많았다. 로동자들은 그를 《우리 아바이》라고 즐겨부르는가 하면 《호랑이아바이》, 《구두쇠아바이》, 《카만아바이》라고도 불렀다.

《우리 아바이》라는것은 그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적극 도와주기때문에 부르게 된것이고 《호랑이아바이》라고 부르는것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범처럼 무섭게 다룬다는데서 나온것이였으며 《구두쇠아바이》라고 부르는것은 공구나 부속품이 없으면서도 주인답지 못하고 거칠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공구나 부속품을 선뜻 내주지 않는데서 생긴것이다. 피상한 별명인 《카만아바이》는 하수도 보수작업을 끝내고 파묻을 때면 의례히 《카만…》 하고 깐깐한 검사공처럼 제눈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야 마음을 놓군 하기때문에 부르는 별명이였다.

자기가 맡은 구간의 상하수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사명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각성, 헌신성,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높은 책임성을 낳게 하였던것이다.

아바이가 이처럼 일을 책임적으로 하기때문에 그가 참여하여 보수한 곳은 절대로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아바이는 늘 사람들에게 《일을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살아 이름을 펼치지 못해도 죽은 다음에 남의 욕을 먹지 않게 일해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군 하였다.

자기 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생을 자각적으로 일한 한 오랜 상하수도관리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런 사람이 진짜 당에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상하수도관리공과 같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 있는 일군은 늘 어깨가 무거우며 그런 일군은 언제 한번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놓고도 절대로 성차해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자기 단위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투철한 각오로 하나부터 열백까지의 모든 일을 두팔 걷고 설계하고 작전하고 집행하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여나가기마련이다.

책임성이 높은 일군이라야 아래사람들이 일을 실속있게 하도록 적극 떠밀어줄수 있다.

일군들이 책임성없이 아래에 넘기는 방법으로 일하면 충실한 열매는 고사하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철저히 경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자각성을 가지고 투신할것을 바라시는 믿음과 기대의 말씀이였다.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일군들이 잠도리부터 단단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분발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

이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오늘의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하고도 긴요한 임무이다.

본사기자 량 순

과학자들이 새겨안은 애국의 넋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선의 과학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며 탐구의 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을 생각할 때면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과학자를 환사람한사람을 품들여 키워 당의 두리에 성벽처럼 세워주신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십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대학들과 전문단위들에서 훌륭한 프로그람들을 보아주시려고 현지에 나오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출품된 프로그람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여기에 전시된 프로그람들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서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람을 개발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처음 프로그람개발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단위별, 부문별경쟁도 조직하였지만 개발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없었다.

프로그람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프로그람이 완성되면 보아주겠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람개발과 관련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과학자들에게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그처럼 모대기던 프로그람개발사업은 끝끝내 성공에로 이어졌던것이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기 프로그람개발사업의 방향을 그어주시고나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연구과제를 종자로 골라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람을 개발하는것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그때야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과학을 연구해야 하는가.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로서의 량심과 무거운 사명감을 되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정녕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마다에 숭고한 애국의 넋을 깊이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는 과학을 알기 전에 먼저 조국과 인민을 알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애국자, 과학자대군이 자라나게 되였던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인민은 선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어느해 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포전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일군으로부터 농사정형을 료해하시였다.

포전들에는 거름무지도 얼마 보이지 않았고 겨울난 강냉이그루터기들도 그대로 있었다.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강냉이영양단지를 만들 부식토를 포전별로 넉넉히 마련하였다가 양지바른 곳에 모판자리를 만들고 영양단지를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에서 심고있는 작물의 품종에 대하여서도 깊이 관심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작물배치를 잘하여야 한다. 군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작물을 심으라고 내려먹이지 말고 오랜 실농군들과 의논도 하고 포전별, 필지별로 작물배치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의 충격은 컸다.

땅에 대하여, 자기들이 심어야 할 작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 구현하지 못한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알곡작물과 함께 남새도 많이 심어야 한다는데 대해서와 지력을 높일 방도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여기서도 창성군처럼 산을 리용하여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여기같은 산골농장에서는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면 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짐승을 많이 길러 젖과 고기문제를 얼마든지 자체로 풀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산골농장도 벌방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가진 인민대중은 현명한 스승이고 그들을 조직동원하고 잘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의 철리를 일군들의 가슴에 새겨주신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5대교양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자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참신한 방법으로

동림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단위마다 구체적실정과 정황이 서로 다르다. 때문에 당조직들이 사상사업의 실효를 높이자면 그에 맞는 교양방법과 형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동림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구체적실정과 정황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모이는 계기를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학습을 잘하고있다. 실례로 군급기관 일군들을 위한 강연회의 시작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보여주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이 나왔을 때였다.

서상헌 군당부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부문과 련계하여 록화편집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리용과 실효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군급기관 일군들을 위한 강연회시작전에 록화편집물을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였다.

토의끝에 강연회의 날을 리용하여 록화편집물을 보여주었더니 반영이 컸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도 학습할수 있어 좋았고 감화력이 큰것으로 하여 깊은 여운을 남기여 좋았다.

그후 군당위원회에서는 강연회시작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수록된 록화편집물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에 대한 실효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일군들이 회고록학습을 더 진지하게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단위들마다에 나가 회고록을 통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잘하여 높은 사업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공장, 기업소는 물론 협동농장의 특성에 맞게 회고록학습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온 군에 회고록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운영을 실속있게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단위들마다에서 긴급히 수행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전투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이렇게 하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사업실천으로 빛내여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며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수행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기와 공정에 맞게 위대성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실례로 군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로 위대성도서해설선전대를 무어가지고 군급기관과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선전활동을 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올해 1월초에도 그들은 보성, 삼성, 룡연협동농장을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단위들을 순회하면서 예술선동을 배합한 위대성도서선전을 잘하여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다. 이것은 협동농장의 출판물보급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그들도 군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과 함께하여 전투장마다에서 정황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통한 교양사업과 함께 위대성교양자료카드도 잘 리용하여 그 실효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여기서는 잠봉농장, 산성협동농장 출판물보급원들이 앞장서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다음으로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여 위대성교양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의 날과 5호담당선전원의 날 운영을 잘하여 당초급선전일군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 한편 위대성교양의 실효를 높여나가는 단위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였다.

얼마전에도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룡산협동농장과 남삼협동농장의 당조직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 단위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이런 사업은 협동농장당조직들이 당초급선전일군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고 들끓는 포전들마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정에 맞는 위대성선전을 잘해나가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하여 협동농장들마다에서 거름생산과 운반을 비롯한 올해 농사차비전투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문답식학습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도 활발히 벌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한층 높여주고있다.

실례로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 진행한 문답식학습경연을 들수 있다.

사실 지난 1월초에 군적으로 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할 때 협동농장들에서는 그것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거름생산과 운반으로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것이다.

군당책임일군은 바쁠수록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론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협동농장들의 포전들에서 항일유격대식 문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되게 되였다. 그 이후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여 경쟁열의는 날로 높아지게 되였다.

협동농장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별 그리고 교육과 보건부문별로 고조를 이루며 문답식학습열풍이 일었다. 그것은 그대로 높은 사업성과로 이어졌다.

경험은 이곳 군당위원회에서처럼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위대성교양을 심화시켜나갈 때 어느 단위에서나 혁신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강계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구룡평정점에서 강계시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강계편직공장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8정보의 산림이 있다.

아카시아나무, 참대버드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단나무, 비타민나무 등으로 꽉 들어차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좋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덮혀가는 참된 인간들, 이곳 종업원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을 키워낸 당조직이 있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유학철초급당위원장은 출장지에서 돌아온 강성화지배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강계시 공인지구의 일부 면적의 산들이 벌거숭이가 된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지배인은 말했다. 어쩐지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들리였다.

그 산들도 조국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맡아 수림화를 실현하자.

이것은 초급당위원장과 지배인의 일치한 생각이였다.

초급당위원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이 곧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는 과정으로 되게 하리라 결심하였다.

공장에서는 산림복구전투단계별목표를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얼음에 박밀듯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초급일군들속에서 로력이 긴장한데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갔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곧 당의 요구이다. 조국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앞장에 서자.

이렇게 되여 관리일군들과 직장, 작업반초급일군들부터 분발해나서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산림복구전투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해주는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콩크리트구조물로 된 전경도와 주요지점들에 10여개의 표어들을 세워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그리고 산중턱에 물주머니를 만들어 자연관수체계를 갖춘 양묘장을 새로 꾸리는것과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키울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나갔다. 그 앞장에는 늘 일군들이 서있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먼저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종업원들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장에서는 산에 나무를 심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주변의 산들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 수림이 우거지게 하고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소중히 자리잡히게 되였다. 그것은 곧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게 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실천을 통해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 부문당위원회에서

몇해전이였다. 약초교재원을 돌아보는 학부장 김명희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래전에 꾸려놓은 교재원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나니 볼품이 없었던것이다. 원인은 약초교재원을 소홀히 여기는 교직원들의 옳지 못한 관점에 있었다. 특히 약초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약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함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여나갈 마음을 깊이 심어주려는 교직원들의 자각이 무뎌지지 못한데 있었다.

약초교재원을 자체의 힘으로 새로 꾸리자는 그의 제기를 당조직에서는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에서 기본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약초교재원을 꾸리는 과정이 교직원들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더욱 깊이 간직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약초채취를 위해 먼길을 떠나는 교직원들에게 전쟁로병인 김기철교원이 체험담을 들려주도록 한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전화의 나날 총포탄이 우박치는 격전장들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쳤던 로박사의 이야기는 교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아픈살이 되는 오늘도 변함없이 교단을 지켜가는 로병의 억세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거울로 삼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짧은 기간에 백수십종의 약초들이 꽉 들어찬 교재원을 번듯하게 꾸려놓게 되였다.

학부의 교직원들이 모든 교실들과 실습실, 강좌사무실들을 새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대중운동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떨쳐나섰을 때였다. 제일 걸린것이 목재가공기계가 없는것이였다. 많은 책상과 걸상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자면 결정적으로 목재가공기계가 있어야 하였다.

학부장이 다른 단위에 있는 목재가공기계를 수리하여 쓰자는 의향을 내놓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이때 학부장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고 교직원들을 불러일으킨 일군이 부문당위원장 김광동무였다. 그는 교직원들속에 들어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어떻게 남에게 의존하겠는가,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다, 우리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지혜와 열정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분출시켰다.

한편 교직원들속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그무렵 부문당위원장은 한 실험공과 담화하는 과정에 그의 아버지가 어느 한 나라에 갔다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엄청나 병원출입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였다.

부문당위원장은 실험공이 교직원들에게 아버지의 체험을 들려주도록 하였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사회인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에 대한 실험공의 이야기는 교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교직원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짧은 기간에 목재가공기계를 수리하고 건장한 전투를 벌려 많은 목재가공제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다기능교실들과 실습실들, 강좌사무실들은 대학적인 본보기로 되였으며 도안의 교육부문 일군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였다.

신념교양이 실속있게 진행되는 과정에 교직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진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지난해 대학적인 교수실력판정과 과학연구 및 자질향상판정에서 학부의 교직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것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억척같은 신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1월 학부는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곳 당조직에서 교직원들을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든 결과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자료가 생동해야 실효가 크다

신천군 백석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생동한 자료는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하다면 어떤 자료를 리용해야 사상교양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명중포화로 되겠는가.

신천군 백석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그 대답을 찾아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계급교양실을 돌아보던 김형삼리당위원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금껏 리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었다. 계급교양실을 잘 꾸리고 참관계획도 빈틈없이 짜군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그 실효가 아니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계급교양직관관들을 눈여겨보니 확실히 부족점이 있었다.

자료들이 일반적이고 생동하지 못했다.

언제인가 농장에 살고있는 문순옥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계급적원쑤들은 그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학살하고 10살 난 동생을 3살잡이 녀동생을 업은채로 생매장하였다.

그런 력사적사실들에 근거하여 생동하게 계급교양을 한다면 실효를 훨씬 높일수 있었다.

계급교양실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 양지바른 둔덕에 자리잡은 애국자묘가 안겨왔다. 100여명의 인민들의 령혼이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피의 복수를 부르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는 곧 리당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계급교양실에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백석땅에서 감행한 만행자료들을 보여주는 직관판들을 더 제시하자는 그의 발기는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진지한 토의끝에 좋은 안들이 나왔다.

한 직관판에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백석땅에서 인민들을 학살한 수를 종합적으로 밝혀주고 류여배로인을 비롯한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자료들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직관판에는 목격자, 체험자들의 사진과 함께 원쑤들의 만행에 대한 증언자료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리당위원회에서는 목격자, 체험자들의 증언자료를 얻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하나의 자료라도 더 빨리 찾아내는것이 급선무였다.

리당일군들은 리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당 일군들도 만나보면서 목격자, 체험자들을 한명한명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자료에 기초하여 계급교양직관판들을 곱게 만들었다.

《백석땅의 원한을 잊지 말자》라는 표제아래 목격자, 체험자들의 증언내용을 새기고 배경에 애국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하였다고 일군들은 말했다. 그 말에 오선화동무가 얼마나 서운해하였는지 모른다.

당의 믿음을 받아안고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할 사람이 다름아닌 당초급선전일군들이다. 그런데 좋은 땅만 골라가며 농사를 짓고서야 어떻게 선동원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 말에 농장의 일군들은 할말을 찾지 못했다.

며칠후 오선화동무는 김동무가 받았던 포전과 바꾸어 관리하게 되였다. 그해 그는 거름을 많이 내여 땅을 기름진 옥토로 전변시켰으며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농장적으로 높은 알곡소출을 내였다. 다음해에도 오선화동무는 수령논이라고 땀마발을 하며 일을 되는대로 하던 한 농장원과 또다시 포전을 바꾸어 그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가꾸었다. 이것은 그대로 작업반원들에게 농사군은 땅에 어떻게 진심을 붙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작업반원들속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을 체득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집짐승의 사료단위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맡아안고 그것을 끝끝내 완성시킴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이야기, 중학교를 갓 졸업한 막내딸을 선동원으로 내세워 선동원가정의 바통을 이어나가도록 한 이야기…

그는 이처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여 농장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초급선전일군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심장에 새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모범선동원들을 소개한다.

천리마시대 붉은 선동원처럼

단천시 양평협동농장 제3작업반 3분조 김영옥동무

해별에 거무스레 탄 얼굴, 농사일에 험해진 손…

우리가 본 단천시 양평협동농장 제3작업반 3분조 선동원 김영옥동무의 첫 모습이였다. 그의 가슴에 얼마나 소중한 지향이 간직되여있는지 우리는 취재과정에 잘 알게 되였다.

당조직의 믿음속에 선동원사업을 갓 시작했을 때였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농장에 온지 다섯해밖에 안되는데다가 농근맹초급단체위원장사업까지 맡아하는 그에게 있어서 선동원의 일은 결코 헐한것이 아니였다. 뒤떨어진 분조원의 일을 도와주자고 하면 《선동원은 힘이 남아돌아가는게지.》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 때라 가정적인 고충 역시 컸다. 생각다 못해 김영옥동무는 리당위원장을 찾아가 선동원사업을 못하겠다고 제기하였다.

《로동계급출신이고 노래보급책임자인 동무가 못하면 누가 하겠소? 당조직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한번 본때있게 해보기요.》

처음에는 듣기 좋게 타일러주던 리당위원장이 매를 쓰는 그에게 눈물이 쑥 나오도록 어성을 높였다. 천리마시대 붉은 선동원 리신자영웅을 생각해보라. 처녀의 몸으로 남보다 두곱세곱 일도 할래, 인간개조사업도 할래 어느 하루 헐한 때가 없었지만 언제 한번 투정질을 몰랐다. 리신자영웅처럼 분조원들을 친혈육으로 생각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진정을 바치자. 그러면 대중은 선동원을 리해하고 따라설것이다. 그때 가슴뭉클해지는 긍지와 멋이 오늘의 고생에 대비나 되겠는가. …

그날 밤 김영옥동무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확실히 자기가 로동계급출신답지 않게 나약했다는 자책감이 온몸을 휩쌌다.

나도 천리마시대 붉은 선동원처럼 살리라!

이 소중한 지향은 그의 한생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지향, 그 목표를 실천하기가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였다. 남보다 일찍 포전에 나오고 제일 늦게 포전을 떠나는것은 아무것도 아니였다. 다음날 현장에 내붙일 전투속보며 선동자료준비를 위해 길은 밤 책상에 마주앉으면 눈이 저절로 내리감기였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다. 힘들때마다 리신자영웅이라면 어떻게 했을가 하고 스스로 물음을 제기했다. 그러면 절로 힘이 용솟음치군 하였다.

원래 일하면 4분조가 작업반은 물론 농장적으로도 앞선 분조가 되고 농근맹초급단체가 3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닌 후 김영옥동무는 당조직에 자기를 3분조에 보내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때만 해도 3분조의 농사는 시원치 못하였다. 분조에 가서 며칠 일하는 과정에 그는 분조원들이 단합되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였다.

분조에는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농장원이 있었다. 그런데 분조원들은 그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말밥에만 올리였다.

김영옥동무는 분조장, 부문당위원장과 함께 그의 집을 자주 찾았다. 그 과정에 그가 일에 열성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더우기는 안해가 앓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김영옥동무는 자기 일을 끝낸 다음에는 늘 그 농장원의 포전에 찾아가 도와주면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해설해주었다. 안해가 병을 빨리 털고 일어날수 있게 진정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 농장원의 분담포전에는 해마다 풀자이 심했고 그는 심농군으로 자라났다. 분조는 굳게 단합되였고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힘들어하면 노래를 불러 새 힘을 주고 누구의 집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와하며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김영옥동무를 분조원들은 우리 선동원이라고 따르며 존경하고있다. 당에서는 천리마시대 붉은 선동원처럼 살려는 소중한 지향을 안고 당초급선전일군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 김영옥동무를 모범선동원으로 내세워주었다.

지향의 높이이자 인생의 높이이다.

양평땅의 녀성선동원의 삶이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향란

기수가 되고 불씨가 되여

강계시 야학남새전문협동농장 축산작업반 오선화동무

강계시 야학남새전문협동농장 축산작업반 오선화동무는 수십년을 선동원으로 일해오고있다.

그의 선동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불같은 헌신이다.

오선화동무가 선동원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한번은 그가 심한 고열로 맡은 포전의 김을 제 때 못하고 불태우는 희생적인 헌신이 없는 호소가 과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그는 언제나 기수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였다.

이런 실례가 있다.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던 몇해전의 일이다.

오선화동무도 백수십정의 땅을 맡아 관리하게 되였다. 그만하면 지력이 좋았다.

그날 축산작업반에 들어서던 그는 갈은 작업반의 김동무의 얼굴색이 밝지 못한것을 보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가 맡은 포전의 지력이 높지 못했다.

오선화동무는 곧 농장의 일군들을 찾아갔다. 그렇지 않아도 늘 시간이 모자라 뛰여다니는 선동원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하였다고 일군들은 말했다. 그 말에 오선화동무가 얼마나 서운해하였는지 모른다.

당의 믿음을 받아안고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할 사람이 다름아닌 당초급선전일군들이다. 그런데 좋은 땅만 골라가며 농사를 짓고서야 어떻게 선동원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 말에 농장의 일군들은 할말을 찾지 못했다.

며칠후 오선화동무는 김동무가 맡았던 포전과 바꾸어 관리하게 되였다. 그해 그는 거름을 많이 내여 땅을 기름진 옥토로 전변시켰으며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농장적으로 높은 알곡소출을 내였다. 다음해에도 오선화동무는 수령논이라고 땀마발을 하며 일을 되는대로 하던 한 농장원과 또다시 포전을 바꾸어 그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가꾸었다. 이것은 그대로 작업반원들에게 농사군은 땅에 어떻게 진심을 붙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작업반원들속에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을 체득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집짐승의 사료단위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맡아안고 그것을 끝끝내 완성시킴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이야기, 중학교를 갓 졸업한 막내딸을 선동원으로 내세워 선동원가정의 바통을 이어나가도록 한 이야기…

그는 이처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여 농장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에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생필분공장은 그리 크지 않은 단위이다. 하지만 분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20여가지의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분공장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안겨드는 글발이 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이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이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벌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왔다. 이 과정에 분공장은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분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단위로 손꼽히게 된 비결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데 있다.

사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새끼꼬는기계 하나만 놓고보아도 원가에 비해 그 질이 높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분품은 협동품으로 대신하고있었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분공장장 최승철동무는 기술을 혁신하여 원가를 낮추고 모든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것을 결심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그는 한태김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를 뭇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기술혁신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속에 주물을 부어서 만들던 부분품들을 철판으로 제작할수 있었다. 결과 원가를 낮추면서도 자체의 힘으로 부분품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다.

이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롱다리소재들도 어떻게 하면 제품화할수 있겠는가 하는데로 사색을 모았다.

이렇게 되여 지난 시기에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쪼박철판들도 모두 제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게 되였으며 제품의 가지수는 날을 따라 늘어만 갔다.

일군들은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질제고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학습을 정상화하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도금작업반에서는 도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건설지휘부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과시하게 될 중요한 사업이다.

얼마전 우리는 건설지휘부일군들과 만나 건설의 공사규모와 진척정형,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설계분과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총부지면적은 수백만㎡이며 연건축면적은 수십만㎡에 달한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휴양구역-1과 휴양구역-2로 나뉘여 건설된다.

여기에는 호텔과 자취숙소, 민박숙소 등 각종 봉사건물을 비롯한 수백동의 건축물들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대상별특성과 수용능력에 맞게 일떠서고있다.

주목을 끄는 건설대상들중에는 민족문화체험구가 있다.

수천㎡의 건축면적에 일떠서는 조선옷점, 음식점, 태권도장을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건축물들은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직접 보고 느낄수 있게 해줄것이다.

이밖에도 관광객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물들과 수십만㎡의 해수욕장, 정박장을 비롯한 건축대상들이 항구도시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건설되게 된다.

건설지휘부책임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주체조선의 억세찬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공사장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건축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건설장에 달려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민군군인들과 각지 돌격대원들은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지난해 려명거리를 주체건축,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건설속도를 창조한 힘있는 력량과 설비, 장비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또다시 투입되였다.

기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이 려명거리건설장을 방불케 하고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정형에 대해 알고싶다.

시설분과장: 건설지휘부에서는 공사시작부터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지대정리와 로반성토, 하부망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결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전반적인 공사구역에 대한 지대정리와 로반성토작업이 결속되고 기본관로망설치가 끝났으며 구획내부망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하부시설관로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난데 맞게 골조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공분과장: 해변가에서 건설이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시작부터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기초바닥으로 쉬임없이 차오르는 바다물을 퍼내고 갈뿌리를 비롯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등 공사는 시작부터 어려웠다.

그러나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닌 전체 건설자들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지력쟁생, 전인불발하며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덩지큰 자취숙소-4호동의 골조공사를 남먼저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뒤이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인 평양시려단의 전투원들은 무려 21개의 크고작은 대상의 골조공사를 전부 결속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김철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자취숙소와 독립봉사건물을 빠른 기간에 일떠세웠다.

이밖에도 인민보안성려단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 영웅무역국려단의 전투원들이 어려동의 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에서 달려온 다른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본때, 창조기풍을 본받아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록해운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호텔건설에 정밀휘틀공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원림분과장: 원림록화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수만그루의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들을 손상이 가지 않게 가꾸면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한공의 그날을 그리며 건설자들과 함세하여 은행나무, 느티나무, 정향나무 등 수백만그루의 나무들을 전망성있게 심고 가꾸어 공사장구역을 푸르게 단장하고있다.

기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재분과장: 현판부분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래야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부구조공사와 골조공사를 끝내고 내부작업에 진입할수 있다. 마감건재와 설비, 부속품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보장대책을 앞세워야 최상의 수준에서 제기일에 끝낼수 있다.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지휘부책임자: 우리 일군들이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내달릴 때 공사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우리는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공사조직과 지휘를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겠다.

그리하여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평안남도려단에서

시공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말도 있듯이 공사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열쇠는 옳은 작전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공력량편성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어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평안남도려단의 성과가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공사초기에 있은 일이다. 평안남도려단이 맡아 건설해야 할 대상은 여러동이였다. 그런데 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속에는 건설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였다.

맡은 공사과제를 제기일내에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려명거리건설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쌓은 정치부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시공력량의 재편성에 주목을 돌리였다.

당시 려단은 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각각 한개 대대로 하는 20여개의 전투단위로 구성되여있었다.

일군들은 토론끝에 려단을 3개의 련대로 편성하고 손하이 세고 네밀성이 있으며 건설경험이 있는 일군들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하니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었다.

언제나 려단의 앞장에 서있는 1련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련대지휘관들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공무능력이 강한 령대알판공장대대에는 철근가공을, 건설경험이 있는 청성합성가죽공장대대에는 휘틀가공과 조립을 맡겨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대대들의 특성에 맞는 작업조직을 진행하여 공정별계획수행에서 최대의 마력을 낼수 있게 하였다.

시공력량편성을 짜고드니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일군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건설성과로 이어지도록 온 려단안에 드세 경쟁열풍을 일으켜나갔다. 대대별, 련대별경쟁과 함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보여주기사업도 해당 단위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이들의 경험은 일군들이 창조적인 사색과 완강한 실천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수의 보폭과 대오의 전진속도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단위들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그 비결을 알고싶어 이곳 전투현장을 찾았던 우리는 용을 쓰며 돌아가는 종합혼합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시간당 수십㎥의 혼합물을 만들어 기초타입과 골조공사에 필요한 량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는 돌격대원의 자랑도 좋았다. 하나 보다 감탄하게 되는것은 많은 부분품들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설비를 지도국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였다.

처음 리영환당위원장이 공사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중심고리인 종합과혜기와 혼합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자고 제기하였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고 한다.

이러한 때 절사판철이라는 네글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안은 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동해의 명사십리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울 청년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열정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도국에서는 방대한 설비제작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해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어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뚜렷한 작전이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돌격전의 기수가 되여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이였다.

설비제작이 진행되는 전투장은 일군들의 제1선참호였다. 박명남, 렴철수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수백리 밤길을 달려 다른 단위에서 남은 설비를 가져다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 나날 일군들은 기술자, 돌격대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때로는 손에 기계기름을 묻히며 제기되는 부속품가공과 자재보장을 위해 애를 썼다.

드디여 어렵게만 생각되던 과혜기와 혼합기가 빠른 기간에 제작설치되여 온을 내기 시작하였다.

혼합물보장이 앞서나가니 공사실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얼마전에는 이들이 맡은 독립봉사건물-21, 22, 23에 대한 골조공사가 결속되였으며 전투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휘관들은 높아진 공사속도에 맞게 공정별맞물림을 짜고들고 기공구전시회를 비롯한 보여주기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큰 실효를 얻고있다.

이 과정에 간단히 만들수 있는 스크류장치가 창안되여 세멘트하차에 들던 로력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미끄럼식공법이 도입되여 골조조립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였다.

일군의 이신작칙, 그것은 가장 위력한 선동이다.

돌짧는 현실속에 늘 몸을 푹 잠그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대며 높은 공사속도를 기록해나가는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 지휘관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높은 공사실적을 안아온 비결

인민보안성려단에서

인민보안성려단앞에는 전체 해안선길이의 1/4에 해당한 부지에 20여개의 건축대상과 구조물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공사과제가 나섰다. 이것은 지난 시기 려명거리건설에서 맡았던 공사량의 근 3배나 되였다.

그러나 려단에서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 얼마전에는 두개 대상의 독립봉사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섬멸전, 립체전을 벌려 대상건설을 단숨에 최상의 수준에서 속전속결로 완성하는것은 대상건설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맡겨진 공사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섬멸전, 립체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2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공사대상을 다같이 밀고나간다는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하지만 섬멸전, 립체전을 벌리는데서도 중요한것은 중심고리를 바로 선정하고 력량을 집중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방도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휘관들은 공사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능공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전투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야 공사의 질을 보장하면서 그 속도도 따라세울수 있기때문이였다.

려단이 일떠세워야 할 공사대상은 대부분이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시공에 대한 기술적요구수준이 대단히 높다. 반면에 공사에 동원된 전투원들은 거의나 건설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사초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맡겨진 대상을 놓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방도는 오직 하나 당이 제시한 시공의 전문화방침을 자기 단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기능공들을 자체로 양성하는것이였다.

려단의 시공력량을 따져보면 건설경험이 풍부한 단위는 하나뿐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모든 전투원들의 기능수준을 높여줄수 있겠는가.

려단지휘관들의 생각은 깊었다.

지휘관들이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보여주기사업이였다.

건설경험이 많은 단위의 전투현장에서 려단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어려차례나 진행되였으며 때로는 유능한 기능공들을 각 단위들에 내려보내여 기능공양성사업을 방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험이 없는 성원들에게 대담하게 골조조립과 철근가공을 비롯한 작업과제들을 맡겨주고 하나하나 배워주면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즉시에 바로잡아주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려단지휘관들은 건설에 동원된 각 도인민보안국멸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그리고는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방법론있게 따라세웠다.

총화장소가 따로 없었다.

하루작업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의 전투현장이 총화장소였다.

앞선 단위를 려단적인 총화장소로 정한 이곳 지휘관들의 목적은 명백하였다. 각 도인민보안국 지휘관들사이의 경쟁열풍을 불러일으키고 공정별에 따르는 시공조직과 작업방법에서 좋은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것인가를 실물을 놓고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지휘관들은 자기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였다. 목적지향성있는 려단적인 조직사업은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지휘관들모두가 전투원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앞세를 떼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자강도와 평안북도, 강원도 인민보안국의 지휘관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시공력량 대 공사량분석을 치밀하게 한 조건에서 모든 전투원들이 한가지 작업에 전문화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철근가공과 조립, 휘틀제작, 지대정리 및 원림조성 등 여러 기술공정별에 따르는 인원배치를 방법론있게 하고 작업시작전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정치사업과정을 대원들속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의의, 그 실천적방도를 찾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킴으로써 누구나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도록 이끌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대상들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기능공양성대책들을 앞질러가며 세워가고있다.

이렇게 하니 전투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높은 공사실적을 올리고있다.

인민보안성려단의 지휘관들처럼 기능공양성사업을 섬멸전, 립체전의 위력을 떨치는 중심고리로 정하고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갈 때 뚜렷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만리마속도창조의 비상한 숨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자

—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최근년간 흥원수산사업소에서는 물고기급동 및 랭장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시기에 비해 급동능력은 근 두배나 뛰여올랐고 랭장능력도 훨씬 개선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물고기가공과 보관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기술개조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주목되는 점이 있다.

물고기급동능력이 높아진 반면에 그에 필요되는 전력소비량은 줄어든것이다. 종전보다 적은 전력으로 랭장실의 내부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것도 높에 띄는 기술적진보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를 통해 둘, 셋을 얻은 이러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어느 날이였다.

박청원지배인과 허경환초급당위원장은 급동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어로공들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물고기를 허실하지 않고 신선한것으로 인민들의 식탁에 가닿게 하는데서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모두가 잘 알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분위기는 자못 심중하였다.

사실 사업소에는 어려대의 급동설비들이 있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 급동설비들을 기술개조하여 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를 위해 한대의 급동설비를 먼저 개조한 다음 그 경험을 살려 다른 급동설비들도 하나하나 개조할 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에서 론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압축기의 단수를 높여 급동능력을 끌어올리는 문제였다. 이것은 종전보다 급동온도를 더욱 낮출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기술개조에 드는 로력과 자재 등을 깐깐히 타산해보면 사업소일군들은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급동능력을 높이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것이였다. 한W한W의 전기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생각할 때 결코 스쳐보낼수 없었다.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도 결국은 크나작으나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급동능력을 높이면서도 전력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가공직장 기계작업반원들속에 깊이 들어갔다. 가능성이나 따져본 결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조건성을 심어준 길이였다.

시로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종전에 리용하던 전동기를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할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였다. 그렇게 되면 압축기의 단수를 높이면서도 적은 전력으로 급동능력을 끌어올릴수 있었다.

지체없이 개조전투가 벌어졌고 그것은 곧 훌륭한 결실에로 이어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한대의 급동설비를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한 경험에 토대하여 두해전에도 또 다른 급동설비를 기술개조하였다. 그리고 지난해말부터 올해 4월까지 급동설비 한대를 또다시 기술개조함으로써 급동능력을 근 두배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하여 절약되는 전기도 량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였다.

랭장설비를 기술개조한 실례를 놓고보아도 하나를 통해 둘, 셋을 얻는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사업소의 랭장설비상태는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급동한 물고기들을 보관하는데서 일련의 부족점이 있었다.

사업소일군들은 가공직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랭장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랭장실안의 백수십㎥의 면적에 증발판을 증설할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오랜 기간 랭장온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필요되는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여러달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결과 랭장능력이 종전에 비해 훨씬 개선되고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랭동물고기들의 선도를 유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 단위의 현실은 일군들이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니고 최대한의 실리를 따지며 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 때 당정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제끼는 과학적인 작전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먼바다어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수십척의 텅지른 고기배들의 수리정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날바다에서 어로전투를 본때있게 벌릴수 있도록 고기배들마다에 갑판설비들과 어구들을 그윽히 갖추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여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있다.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고 어로공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안아오고있는 결실 또한 뚜렷하다.

뜻깊은 올해를 높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빛내일 혁명적열의로 들끓고있는 련합기업소의 현실은 오늘날 수산부문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어떻게 작전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기풍으로 투쟁함으로써 수산부문을 빨리 추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일군들이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전투승리의 지름길을 열어제끼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전투작전과 지휘를 분석해보면 시사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판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고있는것이다.

련합기업소적으로 배수리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실례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은 지난 시기에도 중시되여왔다. 련합기업소(모체)와 양화수산사업소의 상가선로반을 콩크리트로 형성하여 해마다 상가선보수정비에 들던 많은 량의 침목을 절약한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콩크리트로반에 레루를 설치하니 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의 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되였으며 수리시간도 훨씬 단축되게 되였다.

하지만 련합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배수리능력제고이자 출어일수보장이라는 각도에서 놓고볼 때 이것은 순간의 담보도 없이 근기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라는것이 그들의 확고한 관점과 립장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배수리능력을 보다 높일수 있는 과학적인 작전을 펼쳐나갔다.

지난해 11월부터 흥원수산사업소에서는 상가선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 전개되였다. 이 사업소에 상가선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그런데 배수리에서 호상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할 상가선과 기관수리현장이 동떨어져있다나니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흥원수산사업소의 기관수리현장가까이에 상가선을 새로 건설하는 작전이 펼쳐졌으며 상가선로반을 콩크리트로 형성할 용이 큰 목표가 세워졌다. 현재 상가선건설전투는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흥원수산사업소만이 아니다. 련합기업소(모체)에서도 상가선바줄 수천m를 새로 교체하고 100t유압자끼를 제작하여 배수리에 리용하고있다. 이와 함께 CNC콩작기계들도 갖추어놓아 필요한 배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놓았다. 양화수산사업소에서도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전기를 쓰지 않는 200t유압자끼를 개발생산하여 배수리에 리용하는 등 큼직큼직한 기술적진보들이 이룩되고있다.

이것은 련합기업소적으로 배수리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어떤 폭과 깊이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세부들이다.

배수리와 함께 중요한것은 기공구와 어구준비이다. 어로전투의 결과를 좌우하는 사소한 요인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가며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있는것도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점이다.

지난 3월초 기업소에서 진행된 기공구 및 어구전시회를 놓고보자. 각 선단의 선장들과 어로공들은 남바다에서 배수리를 자체로 할수 있는 기공구들과 계절별에 따르는 각종 어구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여기에 내놓았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 전시회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로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공구들과 어구들을 질량적으로 갖추는 계기로 되도록 키잡이를 잡하였다. 배수리와 물고기잡이에 당장 쓰일 기공구, 어구는 물론 그 예비도 충분히 마련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으며 전시회를 통해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기공구와 어구의 량적, 질적측면을 다같이 중시하면서 평가를 심화시켰다. 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측정계기들과 분사구시험대, 각종 자망과 주낙을 비롯한 많은 기공구, 어구들의 우단점이 평가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 창조된 경험들도 교환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기공구, 어구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중시하고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구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넉넉히 갖추는것이다. 어구예비가 량적으로 아무리 천만히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물고기잡이실천에서는 어떤 정황에 부닥칠지 예측할수 없다.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해 물고기떼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중삼중으로 생길수 있는 정황에 이중삼중으로 앞질러가면서 대처해나가고있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작전에서 찾게 되는 또 다른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다.

사전준비도 결국은 실천을 위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에서 어장람색과 어황예보, 생산지휘를 정보화하며 위성정보자료와 과학적인 람색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련관단위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과학적인 해상지휘체계와 기상예보체계를 개발도입하여 력을 보고있다. 특히 바다물밑장애물극복지원체계를 도입한것은 전망이 기대되는 기술적진보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고기잡이가 활발히 벌어지는 해역들을 선정하고 바다물밑지형을 자료기지화함으로써 어획고를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바다물밑장애물극복지원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 수원건에 말하는 각 선단 선장들의 경험자료들과 다른 수산사업소 선장들의 경험자료들이 참고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이 체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많은 품을 들였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어로공들에게 로동보호복자와 땔감을 비롯한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줌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후방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남새온실과 비닐재배장, 축사들을 꾸려놓은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지 어로공들이 력을 볼수 있게 운영을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해 과학적인 작전을 펼치고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 충 성

밥조개양식에서 우선시한 문제

양화수산사업소에서

최근 양화수산사업소에서 밥조개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면적이 넓은 배양장에서 빨리 자라는 밥조개의 씨받이를 자체로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지고있으며 이로 하여 밥조개양식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바다가양식을 많이 하면 바다어업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얕은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성패는 그 첫시작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밥조개양식을 위한 사업소일군들의 작전에서 우선시하고 힘을 집중하고있는 문제점들을 투시해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밥조개의 씨받이를 할수 있는 과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큼을 들이고있는 실례를 놓고보자.

일반적으로 배양장에서 밥조개의 씨받이를 하고 그것을 일정한 크기까지 성숙시키자면 필요한 물온도, 해비침도, 염도와 산소의 보장 등 여러가지 지표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한다.

지난해 사업소일군들이 밥조개양식을 결심하였을 때 제일 우선시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였다.

물론 사업소에는 배양장에 바다물을 끌어들이고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바다물을 교체하여주는 체계가 서있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바다물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밥조개씨받이에 리용하자면 불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배양장의 물온도를 일정하게 보장할수 있는 과학적인 체계를 확립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배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무릎을 마주하고 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송영호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바다물웃층이 아니라 깊은 층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한것은 깊은 층의 바다물온도가 밥조개씨받이에 적합할뿐아니라 년중 온도변화가 크게 없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깊은 층의 바다물을 배양장에 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보아도 양수기는 물때치고 직경이 큰 비닐관이 천수백m나 있어야 하였다.

사업소의 현 실태만을 따진다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밥조개양식을 위한 목표를 놓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소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양식,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이다. 종이장우의 계획이나 말로만 남는 결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라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길도,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수 있는 길도 다름아닌 당정책결사관철에 있었다.

이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자각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필요되는 비닐관을 해결하기 위해 련관단위를 자주 오갔다. 그리하여 사업소에는 깊은 층의 바다물을 배양장에 끌어올리는 체계가 확립되였다.

밥조개양식에서 내짚은 첫 걸음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업소일군들은 빨리 자라는 어느 한 밥조개를 양식용종자로 선정하고 그 씨받이를 자체로 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배양직장의 종업원들은 련관단위 연구사들과 함께 이 밥조개의 씨받이를 위한 협동연구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 연구사업이 밥조개를 양식하고있는 사업소주변의 여러 단위 일군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수 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사업소의 종업원들과 련관단위 연구사들은 밥조개의 씨받이에서 나서는 적지 않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일정한 경험도 터득하였다.

실패에서 찾은 교훈에 기초하여 이들은 지금 새로운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해나가고있으며 성공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하나를 통해 둘, 셋을 얻는 일본새

흥원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최근년간 흥원수산사업소에서는 물고기급동 및 랭장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시기에 비해 급동능력은 근 두배나 뛰여올랐고 랭장능력도 훨씬 개선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물고기가공과 보관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기술개조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주목되는 점이 있다.

물고기급동능력이 높아진 반면에 그에 필요되는 전력소비량은 줄어든것이다. 종전보다 적은 전력으로 랭장실의 내부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것도 높에 띄는 기술적진보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를 통해 둘, 셋을 얻은 이러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어느 날이였다.

박청원지배인과 허경환초급당위원장은 급동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어로공들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물고기를 허실하지 않고 신선한것으로 인민들의 식탁에 가닿게 하는데서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모두가 잘 알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분위기는 자못 심중하였다.

사실 사업소에는 어려대의 급동설비들이 있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 급동설비들을 기술개조하여 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를 위해 한대의 급동설비를 먼저 개조한 다음 그 경험을 살려 다른 급동설비들도 하나하나 개조할 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에서 론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압축기의 단수를 높여 급동능력을 끌어올리는 문제였다. 이것은 종전보다 급동온도를 더욱 낮출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기술개조에 드는 로력과 자재 등을 깐깐히 타산해보면 사업소일군들은 하나의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급동능력을 높이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것이였다. 한W한W의 전기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생각할 때 결코 스쳐보낼수 없었다.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도 결국은 크나작으나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급동능력을 높이면서도 전력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가공직장 기계작업반원들속에 깊이 들어갔다. 가능성이나 따져본 결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조건성을 심어준 길이였다.

시로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종전에 리용하던 전동기를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할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였다. 그렇게 되면 압축기의 단수를 높이면서도 적은 전력으로 급동능력을 끌어올릴수 있었다.

지체없이 개조전투가 벌어졌고 그것은 곧 훌륭한 결실에로 이어졌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한대의 급동설비를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한 경험에 토대하여 두해전에도 또 다른 급동설비를 기술개조하였다. 그리고 지난해말부터 올해 4월까지 급동설비 한대를 또다시 기술개조함으로써 급동능력을 근 두배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하여 절약되는 전기도 량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였다.

랭장설비를 기술개조한 실례를 놓고보아도 하나를 통해 둘, 셋을 얻는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사업소의 랭장설비상태는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급동한 물고기들을 보관하는데서 일련의 부족점이 있었다.

사업소일군들은 가공직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랭장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랭장실안의 백수십㎥의 면적에 증발판을 증설할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오랜 기간 랭장온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필요되는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여러달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결과 랭장능력이 종전에 비해 훨씬 개선되고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랭동물고기들의 선도를 유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 단위의 현실은 일군들이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니고 최대한의 실리를 따지며 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 때 당정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황금해》호계렬의 배무이에 박차를

흥원조선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흥원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황금해》호계렬의 배무이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흥원조선소에서 최근 몇해동안 계속 무어내고있는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는 현대적인 어군탐색설비들과 통신수단, 능률높은 어구들을 갖춘 만능어선이다.

수산성에서는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낼 목표를 세우고 배무이에 필요한 중요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수산성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배무이전투현장에 위치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있다.

조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뚫고나가며 배무이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이들은 지난 시기 배무이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대비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무이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합리적인 선체조립방법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보다 개선하여 조립기일을 단축하고있다.

이와 함께 다자식용접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설비들의 가동률을 원만히 보장하고 합리적인 지구장비들도 새롭게 창안도입하여 배무이속도를 높이고있다.

조선소의 일군들은 선체작업과 함께 조타실, 선원실제작도 동시에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였다.

강선작업반과 가공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단위 로동자들은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면서 용접과 파판작업, 각종 배무이가공품보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배무이전투현장에 파지를 정한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조선소종업원들의 가족들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가지고 달려나와 이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조

통졸임생산공정의 현대화공사 마감단계

신포물고기통졸임공장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수산물가공품을 다종화, 다양화하며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게 포장을 질적으로 하고 상표도 특색있게 만들어붙일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물고기통졸임생산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수산성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통졸임생산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설비와 전통을 일신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와 양화, 흥원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통졸임을 많이 보내줄 입념안고 통졸임공장현대화공사장에 달려나와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도와나서고있다.

자력갱생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해 통졸임생산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할수 있는 설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으며 통합생산체계구축사업도 계획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시대적미감이 나게 일신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은 후 모두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 통졸임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완성되면 년간 통졸임생산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떼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순천메기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2018년 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진행

2018년 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7일부터 13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장애자와 애호가부류,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 남, 녀부류, 애호가 혼성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는 평양시안의 장애자, 애호가선수들과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문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 탁구애호가,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속에 체육적재능을 꽃피워온 장애자선수들이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애호가선수들도 전문선수 못지 않게 공격과 방어전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각이한 처넣기와 재빠른 이동에 의한 강한 걸어치기 등 다양한 탁구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장애자와 애호가가 함께 출전한 경기에서는 유명신, 정성렬선수들이 1등을 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애자, 애호가선수들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배천가구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구재료와 가구재료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경량화되고 견고하며 쓰기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건구와 가구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황해남도에서 건설기공구 및 건재, 건구제품들에 대한 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도, 시, 군의 해당 부문 일군들과 건설건재, 련관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건설기공구와 건재, 건구들이 출품되였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배천가구공장에서 목재대신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만들어내놓은 출입문과 휘틀, 합판이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기때문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우리와 만난 군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가구공장에서는 도에서 전시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백수십개의 출입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었다. 그 경험에 의하면 경소마그네샤는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우선 귀중한 목재를 쓰지 않아 좋다.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면 책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구제품들은 물론 건재, 건구제품들을 만들수 있다. 또한 강재를 쓰지 않고 버팀대, 여러가지 무늬와 색갈을 가진 장식벽판과 흡음판, 장식재들도 생산할수 있다.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모를 산에 옮겨심으면 보통 20년이상 자라야 목재로 리용할수 있다. 하지만 경소마그네샤를 가지고 그 목재를 대신할수 있다. 경소마그네샤를 기본재료로 하고 톱밥이나 대패밥, 벼겨, 분쇄한 곡식짚중에서 어느 한두가지와 몇가지 첨가제만 있으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경소마그네샤로 제품을 만들면 국가에 많은 리득을 줄수 있다.

경소마그네샤로 제품을 만들면 연료소비가 적고 사용과정에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관리에도 좋다. 또한 열과 물에 대한 견딜성이 높으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만든 제품의 우월성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소마그네샤는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다. 그것은 경소마그네샤로 만든 제품에 비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소마그네샤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것은 지난해 가을무렵이다.

어느날 군책임일군인 신창길동무로부터 경소마그네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배인 안철영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애국은 뱃세이기 전에 실천이고 실적이여야 한다. 귀중한 목재를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것으로 산림복구전투에 이바지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이 문제를 종업원모임에 내놓았다. 이윽고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원종섭동무가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목재원천이 부족한 군의 실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먼저 지지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지배인은 원종섭동무와 함께 경소마그네샤에 조예가 있는 어느 한 기술자를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술서적들을 보면서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서 보다 큰 신심을 가진 그들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다싶이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몇가지의 첨가제를 써보았지만 과학기술적인 담보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공장의 기술력량으로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목재를 실어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첨가제들을 바꾸어가면서 시험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몇가지의 다른 첨가제를 리용하면 경소마그네샤로 제품을 만들수 있다는 실머리를 쥐게 되였다.

다음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먼저 제품생산에 필요되는 형타를 만들었다. 그리고 형타에 톱밥과 첨가제들을 섞은 경소마그네샤를 얇게 깔았다. 다음 그우에 유리섬유를 한벌 려고 경소마그네샤를 한벌 더 깔았다.

그때로부터 하루 지나 생산된 제품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성공이라는것이 증명되였다.

온 공장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목재대신 경소마그네샤로 가구와 건구제품을 만들수 있는 돌파구를 개척한 기세로 출입문을 위주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경소마그네샤의 우월성을 알게 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다 합리적인 생산공정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하기에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심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김 창 길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제시된 때로부터 어느덧 2년세월이 흘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로선과 방침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헌시기 절박하게 나서는것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 문제,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실현하여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의 결정체로서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고무적기치이다.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와 억척의 신념, 절세위인의 숭고한 민족애가 뜨겁게 어려있는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의 리정표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트팀없이 계승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로선이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이 로선은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질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완전히 부합되고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자주통일의 지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내놓으신 북남관계개선방침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과격적인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그이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통이 큰 결단, 락천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흐름은 줄기차게 이어져 마침내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4.27선언이 채택되는 민족사적사변이 일어났다.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문제들이 명시되여있는 4.27선언의 채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세인을 격동시킨 오늘의 경이적인 사변과 성과들을 목격하며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게 하는 필승의 기치이다. 그를 따르는 여기에 분렬의 장벽을 우리 민족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휘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반도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오래동안 극도의 과국상태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를 단몇달동안에 극적으로 개선시키신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정치실력의 높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어찌 북남관계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중화인민공화국을 또다시 방문하심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겨레가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땅우에는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허 영 민

북 남 수 뇌 상 봉 을

쁠럭불가담운동 조정위원회가 환영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쁠럭불가담운동 조정위원회가 9일 쁨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쁨뮤니케는 2018년 4월 27일에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이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철저히 리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북남대화와 신뢰구축 및 화해조치들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하였다.

판 문 점 선 언 을 지 지 하 여

여러 나라 인사 담화 발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여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 전국위원장인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 전국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신 소식을 커다란 격동속에 접하였다.

선언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조선인민과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은 끊어진 조선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이 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바란다.

또한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노력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 *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흐가 4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 조선반도문제는 세계정치정세의 중심문제로 되고있다. 특히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김정은각하의 구상과 발기는 온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종식시키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선언이다.

판문점선언과 더불어 조선반도에는 민족번영의 새 아침이 도래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김정은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세계적인 정치가,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제시에 조선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방 글 라 데 슈 언 론 인 주 체 사 상 연 구 소 조 결 성

방글라데슈언론인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월 13일 다카시에서 결성되였다.

소조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 데일리 나우로즈신문사 발행인이며 책임주필인 삼슬 하크 두라니가 선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응 당 한 봉 변

대낮에 마른벼락이라고 얼마전 《자유한국당》원내대표인 김성태라는자가 뜻밖의 봉변을 당하였다. 《국회》청사앞에서 그 무슨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추태를 부리다가 한 청년으로부터 된매를 맞은것이다.

적지도 않은 나이에 단식까지 하느라 비틀비틀해진 김성태는 단때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반역정치와 동족대결에 환장해 날뛰면서 온갖 못된짓을 다해온 특등범죄자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카증스러운 역적에게 주먹을 날린 청년은 《맞는자에게는 맞아야 할 리유가 있다.》고 웨쳤다. 당연한 말이다.

김성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매국반역에 얼마나 열을 올리였는가. 이자들이 지금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는것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판에 남까지 겉고들며 단식릉성을 한다, 특검도입을 요구한다 하고 소란을 피우니 누군들 참을수 있겠는가. 사건이 있은 후 인터네트에는 김성태는 매맞아 싸다고 조소하는 글들이 무데기로 올랐다. 김성태에 대한 징벌은 각계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반통일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단죄규탄이다. 김성태의 해괴한 단식놀음은 시작부터 만사람의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자의 추악한 꼬락서니를 조롱하듯 음식물이 배달되는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갖은 멸시속에 단식을 근근히 이어가던 김성태인데 낮도를 청년에게서 주먹맛까지 톡톡히 보았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가.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고 《자유한국당》것들이 계속 반역질에 열을 올리지만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오늘은 김성태가 한대 얻어맞았지만 래일은 반역패당모두가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홍 철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앞길에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력사적인 리정표가 세워졌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밝아오는 조국통일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커다란 희망과 락관에 넘쳐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봄과 수개월전만 해도 전쟁의 구름이 짙게 드리웠던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향한 겨레의 드높은 발걸음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극적인 사변들은 그 어떤 외세의 개입이 아니라 다름아닌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협의해결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려는것이 우리의 의지이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고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안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때만이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갈수 있다.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운명개척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다. 자기 민족의 운명은 언제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강성번영은 오직 민족주체의 힘에 의해서만 이룩되게 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조국통일의 훼방군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북남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그로부터 외세는 북남사이에 대화와 관계개선의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대결기운을 극구 고취하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였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탈가와하지 않는 외세에 의존하고 그를 민족문제해결에 끌어들이면 외세의 리해관계가 작용하여 민족의 근본리익을 실현할수 없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도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최대리익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민족자주는 판문점선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이다.

북과 남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능히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높이 들고나갈 때 북남관계개선에서 풀지 못할 문제, 뚫지 못할 난관과 장벽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6.15시대는 명백히 립증해주었다. 력사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자기 민족을 외면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하여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준 교훈이다.

독로된바와 같이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짓밟으면서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여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였다. 이것은 반통일적인 외세가 북남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멋대로 롱락할수 있는 공간만 조성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친미사대, 외세의존정책이 빚어낸것은 북남관계파국과 전쟁위험의 고조밖에 없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써만 이룩할수 있다.

판문점선언이 밝힌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나가면 북남관계개선과 발전의 전성기가 열리고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것을 미국에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기 잘못을 덮어놓고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세계무역기구주재 미국상임대표가 기구총회사회에서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보호주의경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있다고 걸고든데 대해 언급하고 누가 다각적인 무역체제와 국제무역규칙의 수호자이고 누가 보호무역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인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는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판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연습소동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있는 미사와기지에서 10일 항공《자위대》와 이와구니기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소속 전투기들의 공동훈련이 시작되였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해병대의 《F-35B》전투기 8대와 항공《자위대》의 《F-35A》, 《F-2》, 《F-15》전투기들과 조기경계기가 동원된다.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연습소동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통하지 않는 강권과 전횡

얼마전 유엔주재 미국대표 헤일리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심의된 결의들에 관하여 자국이 유엔에산의 많은 몫에 해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투표한 비률이 2016년에 비해 10%나 줄어든 31%에 불과하다고 불부은 소리를 하였다.

그럴만도 한 일이다.

유엔총회에서 토의되는 안건들에 대한 채택은 투표로 결정하게 되여있다. 1국1표제로서 보통 절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당 안건이 채택될수 있다.

미국이 31%에 해당한 투표수밖에 쟁취하지 못하였다는것은 유엔총회에서 론의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들의 의도대로 다루어나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헤일리의 행동은 미국이 오랜 기간 강권과 돈으로 국제무대에서 독관치기를 하여온데 대한 인정으로 된다.

그 어떤 결의나 합의도 자들의 의도에 어긋나면 채택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바로 미국의 론리이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국제사회를 롱락하다 못해 딸라를 휘둘러대며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있다. 조금이라도 비위에 맞지 않으면 국제기구들에 대고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을러메였고 자들의 론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기미만 보여도 《원조》를 자르겠다고 다른 나라들에 호통을 쳤다.

2011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팔레스티나를 정상원국으로 받아들이자 미국은 회비납부를 중지하였다.

지난해에는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자들의 결정을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유치한 위협을 해대였다.

이러한 실례들은 허다하다.

딸라를 자기의 목적실현을 위한 위력한 무기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이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원조》라는 미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정치제제를 변경시키기도 하였으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에서는 경제적리권을, 군사적요충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군사적리권을 따내군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두가지만은 타산하지 못하였다.

첫째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우심해질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강해진다는것이고 둘째로는 세계적으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흐름이 나날이 거세여지고있다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원조》를 미끼로 팔레스티나와 캄보쟈, 파키스탄에 압박을 가하였다.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저들의 의도를 실현해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나라들의 반응은 미국의 예상을 뒤집어엎었다. 팔레스티나는 미국의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렸으며 캄보쟈와 파키스탄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이 강권과 딸라로 더는 독관을 치지 못하게 국제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있다.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흔들어대는 돈주머니에 현혹되여 끌려다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이다.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군사비로 마구 탕진한탓에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증대되여 더이상 갚을수 없는 빚더미우에 올라앉은것도 미국이고 국제기구들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있는것도 미국이다.

유엔예산의 많은 몫에 해당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미국이 2018년 유엔에 진 채무가 9억3837만6270여US$이고 현재 유네스코에 지고있는 채무는 6억US$이다.

이런 빚쟁이국가가 아직도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들에 선심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불평을 무린다는것이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어론들은 미국이 자기의 처지를 망각하고 구태의연한 수법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밖에 되지 않을것이라고 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내외의 비난을 받는 헌법개악책동

아베패당이 헌법개악과 관련한 《국민적론의》를 떠들며 그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몸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교도통신이 헌법개악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61%가 아베가 주도하는 헌법개악을 반대하였다. 교도통신은 현 정권의 헌법개정시도가 국민들의 리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곳곳에서는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전 일본국회 중의원 의장은 국민들은 헌법개정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현행헌법은 집권자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으로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호령과 지시가 내려지는것은 이상하다, 전쟁을 포기하며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헌법은 우리의 결의이고 각오이며 리상이다, 그 리념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정치가의 사명이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말에 열린 헌법개악관련 토론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자민당이 헌법 9조의 개악을 제창하였지만 야당들은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립헌민주당 대표는 9조를 개정하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무력으로 되여버린다고 우려하였다. 민진당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만다고 하였다.

헌법개악문제가 론의된것은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에 벌써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9조 재심의를 론의하였다. 2003년에는 자민당 헌법조사회를 내세워 해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며 《집단적자위권》행사, 일본의 전투력보유를 허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악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2005년에도 역시 헌법개악안을 작성하였는데 9조 2항을 내각수상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자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헌법개악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내외의 민심을 감히 거역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나 헌법개악의 《숙원》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아베의 외조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특급전범자 기시 노부스께이다. 일제패망후 미국의 비호두둔으로 정계에 들어가 수상자리에까지 올라간 노부스께는 《평화헌법》을 제전의 산물로 규정하고 헌법개악을 평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군국주의자였다.

내외에서 《아베의 등뒤에는 헌법개정이라는 강철의 심이 박혀있다.》는 평이 나돌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아베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려 하고있다.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들로 궁지에 빠져든 속에서도 헌법개악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사실까지 오도해가면서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느니,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에서 부디 건설적인 론의를 진행하기 바란다느니 하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헌법개악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떠들면서 야당의 지지도 얻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헌법개악에 광분하는 아베패당이 장래를 생각하고 자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좋지 못한 변화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아베패당의 헌법개악책동은 일본의 장래를 망치는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보통국가》론은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것이 《평화헌법》이다. 그러나 그 헌법밑에서 특급전범자인 노부스께와 같이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군국주의사상으로 정계와 사회를 부식시켜왔다. 지금은 군국주의사상으로 뼈속까지 물젖은 그들의 자손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일본을 제침의 길로 사정없이 내몰고있다.

때문에 내외의 민심이 아베패당의 헌법개악책동을 결결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키어 이 실현해보려는 침략광기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지 않고 헌법개악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과연 일본이 가는 길의 종착점은 어디이겠는가. 영영 솟구칠수 없는 파멸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식품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시농장

서 절대로 제때할수 없을것이다. 도시농사는 세계적인 기아문제의 해결책으로 될수 없다. 하지만 식량난을 극복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것이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로 변혁이 일어나 이전에는 농사가 힘들거나 불가능하던 지역에서도 농작물을 자래워 많은 소출을 내고있다. 도시농장은 전통적인 야외정원과 같이 간단할수도 있고 실내수직농장처럼 복잡할수도 있다. 미래의 농장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지만 대다수는 작물들이 당만우에서 토양이나 영양소가 풍부한 물, 공기중에 뿌리를 뻗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매 단에는 태양빛과 류사한 빛을 내는 조명장치가 설치되여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에 이러한 농장들이 건설되여 운영되고있다. 도시농장을 경영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회사는 3종의 양배추와 2종의 근대, 이딸리아향미나리, 고수풀을 재배하면서 같은 물을 리용하여 알프스산천어와 대서양련어도 길러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형성하였다. 물고기배설물은 비료로 쓰고 물은 작물에 의해 정화, 려과된것을 다시 리용하며 남는것은 양어탕크에 보낸다.

2014년에 이전 양조공장내부에 농장을 꾸려놓은 회사는 두개의 도시들에 식품들을 공급하여왔다. 지난해 여름에 새로운 농장을 또 설립하였는데 이 농장에서 한해에 근 12만5000kg의 물고기와 21만5500kg에 달하는 농작물이 생산될것이 예측되고있다.

도시농장의 우점은 우선 작은 공간에서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날씨조건에는 관계없이 작물의 생장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으며 환경에도 유해롭지 않다는것이다. 그와 함께 도시주민들이 언제나 가까이에서 신선한 남새를 구입할수 있다는것이다.

도시농장은 세계의 농업전반을 개변할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전문가들은 도시농사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에 그것이 주변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에 어떤 리익을 가져다줄수 있는가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도시농장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ㄱ-81076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